韓美 방산협력회의 성황리에 열려

—— 美 오레곤州 포트랜드市에서 ——

韓美 방산협력회의가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美 오레곤州 포트랜드市(홀리데이 인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環太平洋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韓美 방산업체간의 협력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회의는, 9일과 10일에 討議가 진행되었고 11일과 12일에는 오레곤 지역내의 防產業體視察로 이어졌으며, 회의기간중 展示會가 병행하여 열렸다.

이에 따라 兩國의 방위산업 협력확대에 새로운 轉機가 마련되었으며, 韓美間 安保增進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 우리 側에서는 본 회 柳俊馨 상근부회장을 비롯하여 9개 회원사 17명이 참가하였으며, 美國側에서는 美 방위준비협회 오레곤지부 Ken E. Beckerich 지부장을 비롯 23개사 52명이 참가했다.

본 회 柳俊馨 상근부회장은 2일차 회의중 「한국의 방위산업과 韓美 업체간의 產業協力」에 대한 연설에서 인사말과 함께 韓美間의 現況에 대해 언급하고는, 실질적인 상호협력을 위해 現存하는 각종 제도적 장애요인 제거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서 韓美軍事交易관계의 不均衡 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또한 韓美 업체간 共同利益을 追求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方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美國업체가 한국의 저렴한 生產費와 세계 技能올림픽에서 6連覇한 한국 숙련공들의 탁월한 기능을 활용하여, 美國의 完製品에 대한 조립생산과 부품을 韓國에서 調達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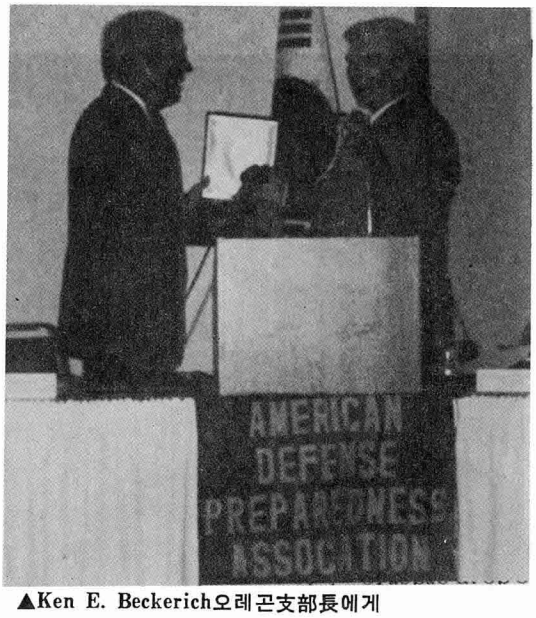
둘째, 合作投資에 의한 공동생산 및 판매로서, 美國업체는 주로 기술제공과 해외판매를 담당하고 韓國업체는 주로 생산을 담당하며 나아가서는 注文者 商標에 의한 생산(OEM)방식으로 까지 발전시키는 방법.

셋째, 한국의 방산업체는 상당한 民需 생산능력을 갖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이를 육성하고 있는데 이를 美國업체가 民需品 生產에 활용하는 방안.

또한 이번 韓·오레곤 산업협력회의를 통해 오레곤州는 한국의 방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협력분야가 발달되어 있어 韓·오레곤 방산협력을 계속 유지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오레곤州 출신 美 上·下院 議員들이 美國 保護貿易 立法에 계속 반대하는 점등을 고려할 때, 한국업체가 오레곤州 진출시 기업운영에 오레곤州 政府의 적극적인 支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美 방위준비협회 오레곤支部는 계속적인 협력을 위하여 韓·오레곤 방위산업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것에 합의하였다.

韓國·오레곤 產業協力會議 공동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Ken E. Beckerich오레곤支部長에게 감사패 전달

한국·오레곤 산업협력회의 공동성명서

우리는 본 회의에 참석한 업체들과 사업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시켜야 한다. 우리 오레곤 사업체와 州政府는 어떠한 것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銘心해야 한다. 본 회의는 하나의 始發點이며, 오레곤이 한국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생산품과 용역을 소개하는 아주 좋은 기회이다. 우리는 이러한 생산품과 용역뿐만 아니라 太平洋 沿岸의 우리 이웃에게 제공할 수 있는 土地와 事業機會도 갖고 있다.

오레곤에서 개최된 한국·오레곤 산업회의는 금년 봄 서울에서 열린 '87韓美防產會議의 後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세계경제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太平洋地域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우리는 兩國의 상호 安保利益이 兩國 防衛產業 생산의 특정한 분야에서 韓國의 技能과 美國의 高度技術을 보다 효율적으로 結合함으로써 증진될 수 있다는 개념에 의견을 일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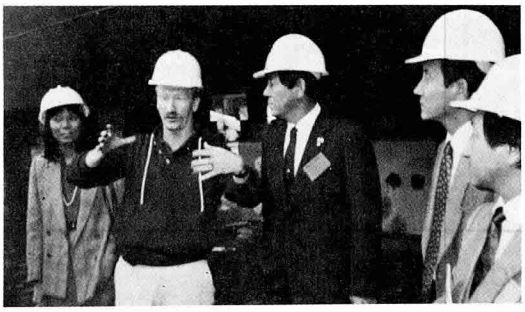
우리는 여러 분야의 방위산업에 가해지는 兩國 政府의 規制와 制約을 除去하기 위한 韓美 양국 정부의 공동노력에 支持를 표명하는 바이다.

우리는 본 회의가 한국과의 업체 對 업체간의 持續的인 關係發展의 始發點일뿐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의 노력을 傾注하여 일하고 있는 오레곤의 모습을 한국에 보여줄 것이다. 오레곤주는 토지와 숙련된 노동자 그리고 한국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본 회의에 後援을 아끼지 않은 한국과 오레곤 兩側의 모든 참석자에게 感謝를 드린다. 그리고 모든 事業을 通한 共同繁榮이라는 다음 段階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Ken E. Beckerich
美國 防衛準備協會
오레곤 지부장

柳 俊 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 근 부 회 장



▲Portland 시찰 모습

이틀간의 산업협력회의에 이어 활발한 商談과 함께 產業視察이 진행되었는데, 우리 일행이 방문한 美國업체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방문한 美國업체

1. Leupold & Stevens 社
- 1905年 創立
- 쌍안경, 照準鏡 및 夜視鏡을 생산하며 인공위성을 이용한 홍수통제장치 체제도 제작

2. Tektronix, Inc 社
- 1940年 創立
- oscilloscope 생산
- 연구·개발에 賣上高의 14.3% 투자
- 國際協力이 매상고의 40%를 占有하며, 中共 및 濠州에는 1백% 투자공장이 있음

3. Freightliner, Inc 社
- 西獨 벤즈 商號의 대형자동차 생산
- 外國產 部品 使用率 : 8%

4. Precision Castparts 社
- 티타늄 素材 엔진鍛造회사
- 직경 약 70미리의 엔진 앞부분 단조제품 1개가 약 1천 7백달러로 부가가치가 높음

5. Teledyne Wah Chang Albany 社
- 핵반응장치의 素材인 치코늄 생산
- 電波이용 촬영기 제조·공급
- 모든 生體實驗에 송어 사용
- 宇宙船 燃料 생산

6. Oregon Metalurigical Corp 社
- 티타늄 생산공장

7. Boeing of Portland 社
- 보잉製 각종 항공기의 착륙장치, 조종간 및 동력전달레바裝置 생산